

# “마마, 방하착 하소서”

### 사극 '용의눈물' 불교소재 곁들여 흥미배가

“모든 것을 버리소서. 불법에는 방하착(放下着)이란 말이 있습니다. 방하착하소서. 이제는 떠나셔야 합니다. 일제 괴로움을 버리고 육체에 연연해 하지 마옵소서. 권력에 집착하지 마시고 무소유의 안온함을 얻으소서.” 사극에서의 법담인가. 아니다. 근래 우리사회의 정치현실과 맞

뜻과도 일치해 출가를 한다. 경순공주는 이복 오라버니 이방원의 칼에 남편과 친동생을 뺏기고 비구니가 된 조선역사상의 비련의 여인이다. 극중에 드러나는 공주의 성격은 불심이 든독하고 효심이 지극하다. 어머니 강비의 환후 중에 매일 3천번 기도를 올리기도 했다는 경순공주의 역할



◆탤런트 김나예씨가 분장한 경순공주. 출가해 비구니가 된 모습.

### 무학대사 이성계에 권력무상론 설법 경순공주 골육상쟁 슬픔 출가로 승화

물려 인기를 얻고있는 KBS TV 대하사극 '용의 눈물' (PD 김재영)의 최근 방영분에서 아들들의 골육상쟁 등 처절한 괴로움을 겪고 있는 태조에게 진언한 무학대사의 말이다. 이 드라마는 경순공주 역을 맡은 배우의 사발, 무학대사의 진언 등으로 회를 거듭하며 불교적 사상을 녹여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은 불자 탤런트 김나예씨가 맡아 신앙사에서 착박상을 촬영했다. 친형육들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욕을 보여 권력의 무상함을 느끼고 왕위를 물려받는 아버지와 출가하는 딸. 개인의 고통을 불교적인 승화로 이끌어가는 그들의 연기가 시청자들을 감동시킨다.

시청율 30%를 웃도는 인기드라마 '용의 눈물'에서 무학대사의 절절한 가르침은 대선을 향해 치열한 공방전을 치르고 있는 정치계는 물론 일반 시청자에게도 무엇인가 깨달음을 주고 있다.

김지연 기자

불교방송이 5월1일 봄개편을 단행한지 1개월을 넘겼다. 그러나 불교방송은 '돌출거리' 중심의 소극 안장개편에 그쳐 원래 목표했던 포교프로그램 강화와 음악교양 오락프로그램의 차별화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방송관계자들과 불자들의 전반적인 평가다.

'인연의 길' (오후2시10분에 방송)은 진행자의 미숙한 방송 경험 탓인지 자주 호흡이 끊기는 등 부드럽지 못하다는 평을 듣고있다. 신설된 몇몇 프로그램은 진행자의 전문성 결여와 미흡한 방송운영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오래전부터 불교방송의

### BBS 프로그램개편 한달 차별화 역부족 진행자 전문성 미흡

평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중적이고 전문적인 진행자의 부재를 다시 한번 노출시켰다.

김홍국씨를 내세워 제2의 전성기를 시도했던 '백담가요' (PD 유병직)는 김홍국씨가 음주운전으로 구속돼 청취자들의 외면을 받기도 했다. 제작팀은 92년 미스코리아 출신이며 현재 음악전문채널 M·Net에서 비디오 자키를 맡고 있는 구나현씨를 급히 새 진행자로 내세웠다. 첫 여성 MC를 내세운 제작팀은 실추된 자 교외발전 직지인심 등으로 표현되는 선(禪)에 대한 육락스님의 감의내용이 담겨있다. <연>

### 육락스님 '참선이야기' 불교방송 테이프 출시

불교방송 사업부는 인기리에 방송됐던 불교방송의 '참선이야기'를 '참선 명상이야기'로 제작, 출시했다.

45개 1집으로 출시된 참선 명상이야기 강의 테이프는 연어도단 불림문자 교외발전 직지인심 등으로 표현되는 선(禪)에 대한 육락스님의 감의내용이 담겨있다.

##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 조건없는 삶 ①

### (특별상)

미국 중국 동부아프리카 여러나라들과 수송업을 하는 무역회사를 설립해 세계를 무대로 뛰어 다닌지 2년여째. 참선수행을 생활의 지표로 삼으면서 하루하루 후회없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고 행(行)이 있는 선(禪) 구원을 위해 회사 식구들 모두 한마음이 되어 일에 매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5년 전 불가(佛家) 인연이 닿지 않았다면 오늘의 내 모습은 없을 지 모른다. 나는 유복하지는 않았지만 교육자인 아버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유년시절을 보냈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친구들과는 달리 어린 나이에 알뜰하게 생활하라는 인생의 난관에 부딪쳐야 했다.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일찍 축산업에 손을 대게 되었고, 젊은 사업가로 촉망받았다.

양복저고리를 벗어놓고 유서와 함께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웬 할머니와 아저씨가 나타나 내 인생의 또다른 국면을 예고했다. 이런 황당한 산중에 이상한 처림의 노인은 웬말이고 또 이 장년의 사내는 누구인가. 나는 본능적으로 그 할머니에게 머리숙여 꾸벅 절을 했다. 유서를 쓰려고 품잡고 앉은 처지에 무슨 늙은 예의범절이 필요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인연이라는 것이 작용한 것 같다.

꾸벅 인사를 하고 양손에 필기도구를 들고 멍때린 표정으로 서 있는 나를 쫓아오게 쳐다보시던 그 할머니는 "젊은이 왜 이래.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사람같은데 왜 죽으려 하는가?" 버럭같은 소리로 나를 꾸짖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어떻게 저분이 내 마음을 알아서

### 절벽위서 유서를 쓰려는데 웬 할머니가 소리쳤다 "젊은이 왜이래, 아직 할일이..."



그림 · 이준석

저리시나. 저 왜소한 체구에 서 어떻게 저런 천둥 버럭같은 소리가 나올 수 있나' 싶어 의아해 하면서도 내 마음을 들긴 것 같아 참피하고 자존심이 상했다.

할머니는 그런 나를 아랑곳 하지 않고 "지금 약초 캐러 가는 중이니 저 아래 초가집에 가 있게"라며 간곡한 한마디만을 남기고 가버렸다.

1백m 정도 올라왔던 길을 내려가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던 초라한 암자를 찾아 갔다. 아트막한 슬래브 지붕 밑에 참호지가 붙여진 출입문 위쪽에 법당이라고

쓰여진 글씨가 보여 문을 두드려보았다. 불상 하나없이 벽에는 그림으로 그려진 부처님 모습(탱화)과 그 옆에 놓여진 불점함만이 시야에 들어올 뿐이었다. 무슨 마음이 발동을 했는지 법당에 들어가 삼배를 납축했다. 불가(佛家)의 인연은 이렇게 재약산 아래 움막처럼 지어진 사자암에서 시작됐다.

삼배를 끝내고 일어서서 두리번거리다 앉아 기다릴 곳도 마땅찮고 쏙스러워 법당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니, 문밖 역시 마음 붙여 앉을 곳도 없거나와 스스로에게 겸연쩍어 잠깐씩 개울을 건너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남머리지 황량한 절벽 길이 눈앞에 펼쳐졌다.

장영화(서울 강남구 역삼동)

◆ Indolence is defilement; by earnestness and knowledge let one pull out his arrow of passion.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는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 애써 닦음으로써, 또한 밝은 지혜로써 욕망의 화살을 뽑으라.

◆ Having abandoned the objects of the five sense, the beautiful, the charming, and gone out from thy house with faith, do thou put and end to pain.

사랑스럽고 즐거움이 되는 오욕(五欲)의 대상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집을 떠나 괴로움(苦) 초

차 없는 사람이 되라.

◆ Cultivate virtuous friends and a distant dwelling-place, secluded and quiet; be moderate in food.

더이 높은 사람과 사귀어라. 인가(人家)를 떠나 깊숙하고 고요한 곳에서 거처하라. 그리고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

◆ Avoid signs; what is pleasant and is accompanied with passion,

turn thy mind undisturbed and weel composed to what is not pleasant.

예욕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걸모양을 떠나서 생각하라. 육신은 부정한 것이라고 마음에 새겨두고,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켜라.

◆ Cherish what is signless, leave the inclinations for pride; then by sacrificing thy pride thou shalt wander calm.

마음에 자취(相)를 두지 말라. 자만심을 버려라. 자만심을 없앤 너는 마음 편한 나날을 보내리라.

- \*indolence (n) 게으름, 나태
- \*defilement (n) 더럽힘, 오염, 때
- \*pull out -을 뽑다
- \*abandon (v) (사람 지위 등을) 버리다
- \*virtuous (a) 덕 있는, 고결한
- \*dwell (v) 살다, 거주하다
- \*seclude (v) 차단하다, 격리하다
- \*moderate in 절제하는, 온건한
- \*cherish (v) (추억을) 고이 간직하다, 품다
- \*incitation (n) 기질, 경향

###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67

##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敎史料!

96년판

##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발간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자,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1호에 이어 **합본 '96년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주옥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 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매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셨던

분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합본집('96년판) : 제 60호(1996. 1. 3) 제108호(1996.12.25)
- 가격 : 50,000원(발송비 별도)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 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

한정된 수량 관계로 선착순 판매 합니다.

(주)현대불교신문사(代)737-8881

##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개인소장용으로 제작 · 보급되는 반가사유상!  
우리문화재 사랑의 시작입니다.

■ 작가: 이진형  
(불교조각원장)

· 30여년간 불교조각에 전념해온 지정문화재 조각가인 이진형 원장이 심혈을 기울여 축조된 작품으로 고전미와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 약력

- 81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총무위원장)
- 86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특별상)
- 89~95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비엔날레 4회
- 제1회 불교조각 개인전 개최 (1995년)
-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후천작가

현재 : 전통문화재 기능인 협회 이사

- 주문시 오후나루 박스로 원전포장하여 판매 및 발송해 드립니다.
- 본 제품은 크기 · 형태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 개금을 원하시는 경우 개금비가 추가됩니다.

규격(폭×높이)	형태	골동품형(左), 코팅형(右)
11cm×26.5cm		230,000원
16cm×40.5cm		350,000원

### 지역 구입 문의

- 안산 (0345)411-4580 목포 (0631)281-2534 부산 (051)634-5114 광주 (062)375-9986
- 속초 (0392)636-3923 인천 (032)461-3461 강릉 (0391)651-9317 영주 (0572)34-3429
- 대구 (053)768-9008 대전 (042)625-1080 공주 (0416)55-0020
- 마산 · 창원 (0551)84-0735 진주 (0591)747-0106

● 기획 · 보급 :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32-1522, 737-8881 팩스 : (02)737-0697 ●

